

제일열관리(냉동)기술학원, 열사업 지정 자격교육(흡수식냉·난방기시설관리사) 첫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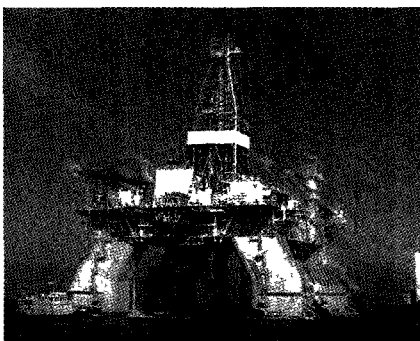
교육과 검정의 이원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실시된 흡수식냉·난방기시설관리사 자격교육(위탁교육)이 서울 소재 제일열관리(냉동)기술학원(학원장 권영수)에서 처음 실시됐다.

지난 1월 17일을 시작으로 2월 21일까지 총 32시간의 교육일정을 마치게 되는 이번 제일열관리(냉동)기술학원 교육일정에는 보다 편안하고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평소 흡수식냉·난방기시설관리사 교육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열관리사들의 상당한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제일열관리 경종호 부원장은 "첫 번째 실시하는 교육이라 홍보 부족과 진행상에 미흡한 부분 등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생들의 열의와 호응도가 높다"며 "차후에는 지역난방설비관리사 자격교육 등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와의 지속적인 조율을 통한 보완과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다 쾌적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총 32시간의 교육(월·수·금, 화·목·토, 주야)의 이수를 통해 2월 21일 협회주관으로 검정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새해 국제유가 33~35달러 전망 (석유협회)



대한석유협회는 2일 올해 국제유가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수급 및 수급외적 요인이 작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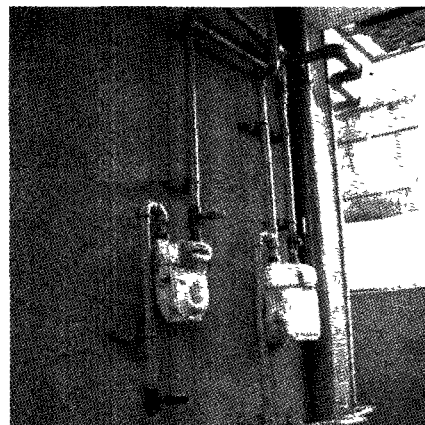
서 배럴당 평균 33~35달러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이 같은 가격 전망의 전제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협력 등 적절한 시장 대응정책 추진 ▲산유국의 정정불안 지속 등을 들었다.

협회는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수요 폭증세가 지속되거나 산유국들의 예상치 못한 정정 악화 또는 테러 등에 의해 대규모 공급 차질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는 평균 40~45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동의 정정불안이 조기에 해소되고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이에 대한 OPEC의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30달러 이하로 떨어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파로 도시가스 판매 20%이상 급증 발전용도 17%기량증가



연이은 한파로 인해 최근 도시가스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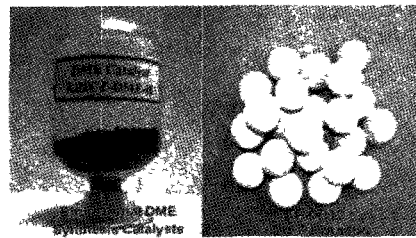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사장 오강현)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12일까지 잠정 집계한 도시가스 판매량은 약 83만418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만3424톤에 비해 약 20.5%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관계자는 "계속되는 한파와 공급 기구수의 증가로 도시가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또 한파로 인해 발전용 LNG의 수요도 약 17%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의 경우 총 11만4874톤의 LNG가 판매됐으며 이중 도시가스용은 7만6388톤이 판매됐다. 지난해 겨울철 일일 도시가스용 판매량이 약 5~6만톤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도 "최근 보름 이상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청정연료 DME 생산기술 개발 化學研·SK기술원 공동연구



석유보다 싸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청정연료인 '디메틸 에테르(DME:산소를 함유한 액화석유가스)' 생산기술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SK기술원과 공동으로 DME제조를 위한 고활성 촉매와 이를 이용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DME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경유차보다 8%, LPG차량보다 18% 적고 매연 배출이 전혀 없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다.

이번 연구에서 화학연구원은 물에

잘 건디는 제올라이트(다공성 나노소재)를 다른 물질과 혼합, 성질을 변환시켜 활성점을 적절히 조절하고 탄화수소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고활성 촉매를 개발했다.

SK기술원은 기존 메탄올 생산공정에 메탄올 탈수반응을 이용해 DME공정을 결합, 새로운 DME생산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촉매를 적용해 DME를 생산하면 반응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효율을 나타내 투자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루에 1만톤의 DME를 생산할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3만5천t 가량 줄여 7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원은 이 기술에 대해 지난 2004년 10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12월 말에 SK(주)에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

에너지설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내의 에너지설비 기술동향 및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특색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에너지총설이 있습니다.

- 매년 에너지전략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하신 분!
-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
-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 학생, 공학 엔지니어들!
-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 현장 에너지관리자 여러분들!
- 기계설계사무소 여러분들!

Energy Total Solutions

차재호 박사와 13명의 박사 집필

강력추천

- 석사 (호서대학교 총장)
- 박사 (포항공대 교수)
- 차장설 이사장 (에너지관리)
- 손재익 박사 (한국에너지)

* '에너지총설'은 에너지총설연구소에서 발행하며,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총설 연구회 25-7 에너시빌 31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4 F.022632-0568